김민주 씨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 전시 중인 작품 중 가장 좋아하는 '클라라의 화려한 크리스마스 달콤 파티'를 설명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장애 없는 화폭…희망을 그렸어요"

지적장애 딛고 수채화 개인전 연 조선이공대 김민주 씨

"아이들이 제 그림을 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집 안에만 머물지 말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배승수) 1층 전시공간에서는 오는 15일까지 '아이들의 행복한 꿈이 하나 가득'이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열린다. 어린 왕자와 피터팬, 뽀로로까지 동화 속에서 막 뛰쳐나온 듯한 생생한 주인공들의 모습이 수채물감의 화사한 색감을 입고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조선이공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과 김민주(여·20)씨. 그녀는 자신의 첫 번째 전시회에서 색다른 주제와 독특한 화법으로 34편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적장애를 갖고 있지만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할 때는 막힘이 없었다.

"어린 시절 읽었던 책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세계를 누구나 한번쯤은 꿈꾸잖아요. 그 모습을 담은 제 그림을 통해 사람들을 미소짓게 만들고 싶었어요."

화폭에 담긴 인물들은 유난히 크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졌다. 작품 속 인물처럼 크고 호기심 가득한 눈을 가진 작가. 그녀는 눈을 통해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대부분의 시간을 그림과 함께 보낸다는 그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

두 살이 되면서 한창 호기심 가득한 시기, 손에 연필을 쥔 아이는 하루 종일 벽에 선과 도형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를 지켜보던 부모는 무엇인가 그릴 때 행복해 하는 아이를 위해 벽에 커다란 종이를 붙여줬다. 장애로 인해 언어발달은 더뎠지만 그림에 열정과 재능은 시간이 갈수록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건 전시회를 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다.

"그림을 그리며 안정과 힐링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위안을 얻으며 그린 작품이기 때문에 제 그림을 보시는 분들이 비슷한 느낌을 얻으시는 거 같아요. 이제 광주에서 첫 전시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서울에서도 전시회를 하고 싶어요."

작가는 뽀로로 그리기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아이들이 뽀로로 그림을 보면서 즐거워하기 때문이라는 것. 자신의 그림을 보며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강조했다.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그린 작품을 모두 합하면 1000여 점이 넘는다. 그녀의 부모는 모든 작품을 소중히 간직하며 장애를 겪고 있는 딸이 그림으로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항상 응원했다. 덕분에 그림 이외에도 음악과 체육 분야에도 특별한 재능을 나타냈다. 실제 그녀는 한 번 들은 클래식 음악의 제목까지 완벽하게 기억한다고 한다. 또한 고등학교 시절에는 장애인 수영대회 광주시 대표로 출전하기까지 했다. 다양한 분야에 재능이 있지만 가장 좋아하는 분야는 역시 그림이다. 그래서 현재 준비하는 것도 '그림동화책'이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그림동화책을 만들 생각이에요. 전시회는 한정된 기간에 찾아오신 분들만 볼 수 있는데 그림책은 더 많은 사람에게 제 그림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즐겁게 만들어서 독자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고 싶어요."

/글·사진=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광주과학기술교류센터-조선이공대 MOU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은 최근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조선이공대학교(총장 김왕복)와 지역전략산업발굴 MOU를 체결했다.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제공〉

농협광주노조, 농특산물 애용 캠페인

사단법인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대표 허권)와 농협광주노조(본부장 박삼지)는 최근 무등산 탐방객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애용 및 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 〈광주농협 제공〉

산미회, 북구 산월동 '사랑의 연탄 나눔'

광주·전남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유관기관장 모임인 '산미회'(회장 김병수 전남우정청장) 회원들은 12일 광주시 북구 산월동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불편한 친구 손·발 역할 4년

목포제일여고 최진선양 뇌경변장애 친구 돕기 '훈훈'

"지금까지 했던 봉사활동은 요양기관에 찾아가 청소를 하거나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전부였어요. 한사람만 도와준다는 것이 조금 낯설었지만 타인을 돕고 보람을 얻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목포의 한 여고생이 4년여 동안 뇌경변장애 친구를 진한 사랑으로 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3반 최진선 학생. 최 양은 목포여자중학교 2학년 때부터 뇌경변장애로 한쪽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같은 반 학생을 도와주기 시작한 것을 인연으로 고교 2학년 말인 현재까지 계속 같은 반과 학교를 지원, 친구로 지내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친구의 손과 발이 되어줘 귀감이 되고 있다.

최양은 4년여 동안 매일 이 장애 친구를 위해 이동 수업 등에 휠체어를 끌어 주고, 급식을 먹을 때 친구 몫까지 두 개의 식판을, 도서관 등에서 책을 빌릴 때도 친구 몫까지 두권의 책을 빌리는 등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사랑으로 감싸 줬다. 특히 최양은 친구를 비장애 학생처럼 대하며 많은 대화를 가져 밝은 성격의 소유자로 탈바꿈시켰다.

몸이 불편해도 모두 똑같은 친구로 지낼 수 있다고 말하는 최양은 자신이 도와주는 일이 장애 친구에게 혹여 마음을 상하지나 않을까 배려해 지인들을 감동시켰다.

최양은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에 그저 수줍게 웃던 장애친구의 모습이 생각난다"면서 "앞으로 남은 1년도 서로 행복하고 재미있게, 서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백혈병 투병 30대 女 가장 돕기 남구 공무원들 수술비 십시일반

백혈병을 앓으면서 홀로 초등학생 자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30대 어머니를 위해 남구 공직자들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성금지원과 골수이식 수술비 마련 등 다각적 지원에 나섰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이모(여·35)씨는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자매를 키우고 있던 중 지난 7월 갑자기 쓰러져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골수 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지난달 다시 재발해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시 골수 이식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딱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구청 공무원들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구청 공무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남구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함께 전개한 '남구사랑 아이사랑 나눔 캠페인'에 후원한 금액 110여만원을 긴급 지원 밀린 병원비와 집세, 전기세 등을 해결하도록 도왔다. 또,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월 5만원씩 1년간 지원할 예정이며, 추후 진행될 골수 이식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 추가 성금 모금을 할 계획이다.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경우 남구 희망복지지원팀(062-607-3341)으로 연락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이씨는 의료비 부담과 밀린 월세, 전기세 체납 등으로 단전과 주거지가 불안정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며 "재활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두 아이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도울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양규모 함평군의장 '의정봉사대상'

양규모(사진 왼쪽) 함평군의회 의장이 12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인배)에서 수여하는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봉사상은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자치의정 실현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인 기초의원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상이다.

양 의장은 제6대 함평군의회 전·후반기 의장으로서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기조로, 열린 마음, 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전남도 '2013 노사문화대상'

전남도가 최근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2013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 행정기관에서 '노사문화대상'을 받았다.

전남도는 그동안 상생의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협력사업에 대해 우수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노사문화대상은 안행부가 공무원 사회에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 확산시킨다는 취지로 2010년 도입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 지자체, 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이 대상이며 노사전문가 등 심사위원회의 4차례에 걸친 심사를 거쳤다. 전남도는 또 정기적인 노사 간담회를 열어 도정 현안 해결과 노사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성현 구례군의회 의장 '지방의정 봉사대상'

구례군의회 김성현(여·68·사진) 의장이 '2013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10일 구례군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회장 김인배) 주최로 12일 목포시의회에서 열리는 제177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한다.

이 상은 의장협의회가 전국 227개 기초의회 의원 가운데 매년 지방자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의원을 시·도별로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전남 최초 여성 의장인 김 의장은 교직과 다문화가정 한글교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 및 다문화가정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시립미술관, 오늘 '실버다움 문화강좌'

광주시립미술관은 13일 오후 3시 미술관 본관 2층 세미나실에서 윤장현〈사진〉 아이안과 대표원장을 초대해 '노안(老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주제로 '실버다움 문화강좌'를 개최한다. 실버다움 문화강좌는 지난 3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달 1차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장을 역임한 윤장현 대표원장은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 (사)광주국제교류센터 이사장, 아름다운 가게 상임고문, (사)광주 전남 비젼21 이사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613-7151. /김경인기자 kki@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오동균·유영자씨 장남 성종군 노진영(전 목포대·초당대 총장)·백희숙(광주시 유치원 연합회장)씨 장녀 은경양=16일(토) 오전 11시 광주 라페스타(구 메리어트웨딩홀) 4층 디아망홀.

▲조남현·류신숙씨 장남 영건군 이교준(前 광주시 폐기물관리과장)·신순식씨 장녀 애린양=16일(토) 낮 12시 40분 라페스타(구 메리어트) 2층 엘루체홀.

▲이인재·손향례씨 장남 진수군 김권수(보림건축사사무소 대표)·황선임씨 장녀 미선 양=16일(토) 오후 2시 10분 수아비스웨딩홀 2층 크리스탈홀.

▲황정욱(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배교연씨 차남 유승군 박종인·남춘자씨 장녀 경라양=16일(토) 오전 11시 50분 라페스타웨딩홀 2층 엘루체홀.

▲최석현·정혜원 씨 장남 정한 군 김제창(삼성증권)·김영순 씨 막내 수아 양=17일(일) 낮 12시 40분 웨딩의전당 금호 30층 아도니스홀.

종친회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청년 이화월례회의(회장 이의준)=19일(화) 오후 7시 011-645-2284.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 062-526-3370.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부부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 자국어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등이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모집

▲살레시안 가족합창단원 모집(단장 나금주, 지휘 김철수)=살레시오 초·중·고 졸업자 및 그 가족이며, 합창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함(부부 중 한분이라도 동문이면 됨),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상무중학교(운천저수지 옆) 010-3404-3712(단장).

▲팔콘만화 아카데미(원장 조대호)=만화기초수업 초등학생부·중학생부·고등학생부·일반부·취미반 수시모집(원장님 1 : 1개인지도), 남구 방림동 샘신협 3거리 070-4065-5054, 010-8947-3006.

▲국립나주병원 자원봉사자=2주 1회 정기적으로 목욕 도우미 및 이미용 서비스, 정서지원 및 함께 운동하기, 노래 및 요가교실, 스포츠 댄스 및 에어로빅. 지원자격은 대학생 및 현업 종사자 061-330-4169.

▲용마 축구클럽 회원=건강한 생활 축구에 관심 있으신 분 환영, 용산초등학교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7~11시까지. 011-607-7462.

▲진월요양보호사 교육생(국비지원, 능력개발카드 소지자 혜택)=주간반(오전 9시~오후 5시50분), 야간반(오후 6시30분~10시) 062-653-6690.

▲김 양식장·김 공장·선원 일하실 분=초보자·경험자 우대, 7명 급구함, 숙식제공, 남구 백운동 백운광장 백운파출소 부근 010-8072-2589.

부음

▲김관임씨 별세 하향문·은희씨 모친상=발인 13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김사순씨 별세 조동현·흥현·법순·미숙·미님씨 모친상=발인 13일(수)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오묘순씨 별세 양동진·국진·석진·경심씨 모친상=발인 13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박공님 님 (여/88세)
子/子婦 : 김용오, 용석/최희영, 용순/김순희, 용선/정인희
女/壻 : 김정덕/강기남, 복순/이상호, 정순/김용운 정난/김장성
• 호 실 : 201호 • 발 인 : 11월 13일
• 장 지 : 나주 금천면 선영 • 연락처 : 227-4381

102호 故공민자 님 (여/81세)
子/子婦 : 임수만/최정례, 주만/김숙희
女 : 임춘희, 춘화
孫 : 박대석, 김이용
• 호 실 : 102호 • 발 인 : 11월 13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6

301호 故박순애 님 (여/97세)
子/子婦 : 김동균/황영자
女/壻 : 미례, 복심, 장가/김종철, 동금/김점용 동엽/장동률
• 호 실 : 301호 • 발 인 : 11월 14일
• 장 지 : 담양천주교묘지 • 연락처 : 227-4382

402호 故이요셉 님 (남/87세)
子/子婦 : 이정철/정현숙, 정민/이민순
女/壻 : 이정희/최순식
• 호 실 : 402호 • 발 인 : 11월 14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14

101호 故김성춘 (남/76세)
子/子婦 : 김수길/차영순 女/壻 : 김수영/이호형
• 호 실 : 101호 • 발 인 : 11월 14일 • 장 지 : 동복선영 • 연락처 : 227-4385

마음까지 편안한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